[유통]

김명주
 02-3774-1458
 myoungjoo.kim@miraeasset.com

유통

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

유통 코멘트

오아시스마켓, 연말 배송 건수 1만건 목표 <https://bit.ly/2k4fQ0A>

- 오아시스마켓, 연말 배송 건수 1만건으로 확대 예정
- 무료 배송 금액을(3만원) 고려할 때, 1만건 달성 시 온라인 일매출은 약 3.5억~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vs 현재 2억원 수준 추정)
- 오아시스마켓의 1) 확대된 물류 capa(기존 대비 3~4배 이상)와 2) 신규 고객 유입 속도를 고려 시 연말 1만건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 1만건 달성 방안으로 1) 자체 반찬공장 가동을 통한 반찬 SKU 확대(10월)와 2) 배송 마감 시간 확대가 있음
-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인프라(매장/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1) 물류 효율성을 최적화 하고 2)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기업
- 외형 성장에도 현 수준의 물류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 유지 가능하다면 1) 중장기적으로 영업 이익률 개선 뿐 아니라 2)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보고서 '지어소프트 2Q19 Review': <https://bit.ly/306AEVe>

전일 주요 뉴스

- 11번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 중. CJ그룹의 '웨이브' 협력 가능성도 존재 <https://bit.ly/2kqxbkL>
- LG유플러스, 당일 배송 플랫폼(퀵서비스) '디버' 출시. 1) 일반인이 배송기사로 등록 가능하며 2)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 자동 배차. 기존 대비 퀵서비스 비용이 저렴. 중개 수수료 또한 저렴하여 기존 플랫폼 대비 배송 기사 수익 증가 <https://bit.ly/2kyBDOg>
- 홈플러스, 매장의 유휴 공간 활용 방안으로 '더스토리지'사업에 이어 공유주방 사업 검토 중. 기존 공유주방 기업에 대여해주는 임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 <https://bit.ly/2m5y7vd>
- 편의점 택배 이용 건수 크게 증가 중. 1) GS25: 17년 18.4%YoY ->18년 26.6% ->19년(1~7월) 34.2% 2) CU: 17년 8.0%YoY -> 18년 13.0% -> 19년(1~8월) 9.5%. 편의점 중 직접 택배를 운영하는 곳은 GS리테일이 유일 <https://bit.ly/2lI4dNy>

① 이마트 (전일주가 -0.44%)

이마트24, 맛보장 서비스 120여종의 모든 프레스푸드로 확대 <https://bit.ly/2k4OrLZ>

② 현대백화점 (전일주가 -0.27%)

현대백화점, 백화점 3사중 처음으로 쿠팡(오픈마켓) 입점 <https://bit.ly/2kAeiM1>

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

종목명	티커	투자의견	목표주가	주가	시가총액 (십억원)	성과(%)				
						1W	1M	3M	YTD	1Y
롯데쇼핑	023530	Trading buy	162,000	136,500	3,861	0.4	10.1	-15.2	-35.3	-23.7
이마트	139480	매수	190,000	112,000	3,122	-3.4	-0.4	-23.0	-38.6	-46.4
신세계	004170	매수	360,000	241,000	2,373	4.3	3.2	-18.4	-5.9	-23.9
롯데하이마트	071840	Trading buy	42,000	32,000	755	2.2	-6.3	-25.3	-31.4	-55.0
현대백화점	069960	매수	95,000	75,100	1,758	-3.7	6.7	-10.7	-16.9	-22.3
GS리테일	007070	매수	48,000	40,900	3,149	5.7	4.3	14.9	1.0	11.7
BGF리테일	282330	매수	262,000	199,500	3,448	-2.0	-7.2	5.0	-2.2	15.7

주: 2019.9.6일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

이름	티커	시가총액		수익률					P/E(X)		P/B(X)		ROE(%)	
		Local	USDmn	1W	1M	3M	YTD	1Y	19F	20F	19F	20F	19F	20F
롯데쇼핑	023530 KS	3,861	3,240	0.4	10.1	-15.2	-35.3	-23.7	13	12.0	0.3	0.3	2.5	2.7
이마트	139480 KS	3,122	2,620	-3.4	-0.4	-23.0	-38.6	-46.4	15.1	11.6	0.4	0.4	2.5	3.2
신세계	004170 KS	2,373	1,991	4.3	3.2	-18.4	-5.9	-23.9	4.7	8.9	0.5	0.5	18.1	6.2
롯데하이마트	071840 KS	755	634	2.2	-6.3	-25.3	-31.4	-55.0	8.3	7.4	0.4	0.3	4.4	4.7
현대백화점	069960 KS	1,758	1,475	-3.7	6.7	-10.7	-16.9	-22.3	8.2	7.3	0.4	0.4	5.0	5.4
GS리테일	007070 KS	3,149	2,643	5.7	4.3	14.9	1.0	11.7	21.7	17.9	1.4	1.4	6.8	7.7
BGF리테일	282330 KS	3,448	2,893	-2.0	-7.2	5.0	-2.2	15.7	21.4	19.0	5.6	4.6	28.1	26.3
GS홈쇼핑	028150 KS	1,032	866	-1.4	-1.1	-8.2	-12.5	-19.5	8.5	8.2	0.9	0.8	10.4	9.9
현대홈쇼핑	057050 KS	1,120	939	0.2	5.4	1.7	-5.8	-16.3	7.4	6.7	0.6	0.6	8.7	8.9
Walmart	WMT US	329,549	329,549	1.0	7.6	9.8	23.9	19.7	23.3	22.6	4.4	4.1	18.7	18.8
Kroger	KR US	19,834	19,834	4.9	11.4	4.8	-9.7	-23.7	11.3	10.6	1.9	1.6	19.0	17.4
Costco	COST US	130,604	130,604	0.7	10.3	18.2	45.8	25.5	36.3	34.6	8.5	8.1	25.7	22.8
Target	TGT US	55,456	55,456	1.4	31.1	26.7	64.2	22.1	17.5	16.5	4.6	4.3	27.0	26.7
Macy's	M US	4,729	4,729	3.7	-26.6	-25.2	-48.6	-56.7	5.5	6.0	0.7	0.7	13.2	11.3
Bestbuy	BBY US	17,561	17,561	3.3	-2.9	5.6	24.2	-17.0	11.4	10.9	4.9	4.8	43.6	41.8
Nordstrom	JWN US	4,813	4,813	7.2	1.7	0.1	-33.3	-52.3	9.4	9.2	6.6	10.0	54.0	60.9
Ocado	OCDO LN	9,355	11,512	3.4	17.9	19.4	69.6	34.2	-	-	14.6	20.1	-23.7	-8.8
Isetan Mitsukoshi	3099 JP	318	2,971	-0.2	1.9	-12.7	-33.9	-35.3	24.7	15.8	0.5	0.5	2.5	2.6
Takashimaya	8233 JP	210	1,959	-0.9	-4.0	1.8	-16.0	-34.3	11.1	11.1	0.5	0.5	4.4	3.6
Seven & I holdings	3382 JP	3,417	31,940	2.6	4.0	4.5	-19.4	-14.3	16.5	13.6	1.3	1.2	8.5	9.7
Familymart	8028 JP	1,286	12,023	3.6	13.9	-0.7	-27.0	4.0	25.5	24.7	2.1	2.0	8.6	8.3
Lawson	2651 JP	533	4,978	0.8	-1.3	3.1	-23.6	-17.4	27.4	21.3	1.9	1.8	7.2	7.8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